만나는 사람마다 이익을 줘야지 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하기 이전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들이 해야 하고, 나를 발견해 가지고는…. 그래서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기르는데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된다." 이 소릴 한 거야. 이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그냥 거기다가, 인제는 둘 아닌 도리를 배우려니까, 전에는 그냥 거기다 놓기만 했는데 둘 아닌 도리를 알려니까 상대방이 어떤 걸로 나툴는지도 모르거든. 거지로 나투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을 막 하는 사람으로 나투기도 하고 별사람이 다 많거든. 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둘 아닌 도릴 가르치려고 자꾸 보이는 걸 모르고, 들리는 거를 모르고, 그 행동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자꾸 상대방으로 해서 저거 하면 또 그렇게 말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나투어서 나에게 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선 자꾸 상대방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고. '아하, 이거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이 튕겨서 저쪽으로 해서 저쪽의 행동을 나한테다 보이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진작 그렇게 알아채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거를 나한테 오는 거대로 거기 놓고 '아, 그렇구나.' 하고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가야 나투는 법이 또 나오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지. 아, 여기서 나오는 대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나가면 자재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야. 아니, 소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야. 자기 마음이 나와서 저쪽으로 갈 때는 탁 잡아채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어떠한 행동을 하나 보느라고 그렇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중간 자기가 한번 보라 이거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를 자기가 한번 보라 이거야. 봐서 이것이 적합하다면 그냥 여기서 나오는 대로 밀고, 여기서 적합지 않게 나온다면 '아이, 그럭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다시 맡겨 놓는 게 다스리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이건 자재법이 될 수가 없어. 자재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평등법, 자재법, 이활궁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내 모습으로 보고 그냥 평등하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에이그, 저것도 몰라서 저런 거지 알면 저럴 수가 없지. 모르는 게 죄지 알면 저렇게 할까.' 하고선 그냥 '저것도 둘 아닌데….' 하고선 맡겨 놓으면 그 사람이 완연히 달라져요.

이 꽃나무도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하고 그냥 '에이, 저거는 못됐으니까.' 하고 그냥 물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자식도 '저놈의 새끼는 저렇게 하니까 꼭 저렇지.' 하고선 그렇게 해 봤자야 자기 손해지 딴 사람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내 자식이라서만 내 손해가 아니에요. 우주천지가 다, 자기가 한바탕씩은 다 돌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십억 년을 같이 돌아가면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 죄지 다른 거 없다고. 모두가 같이 돌아가. 여기 부모가 됐다 저기 자식이 됐다가, 여기 부모가 됐다가 저기 자식이 됐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아니겠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나 자체가 그렇게 밀어 던지지 말고 다 그냥 마음으로 넣어 준다면…. 왜, 내가 "아무리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리 아무리 꺼내도 줄지 않는 것이 그거다." 했잖아. 줄어드니 걱정이야 또 늘어나니 걱정이야? 천, 만을 갖다 집어넣은들 두드러지지 않는데 왜 그거를 못 하느냐 이거야. 너그럽게 왜 못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점점점점 지혜가 넓어지고, 그래서 계, 정, 혜, 해탈향, 해탈지견향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율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계율이거든. 계율도 정에다 놓고 지혜도 정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굴려 가면서 하는 게 바로 수레공법이 아닌가. 이 도리를 모두 알아야지 만약에 신도들한테 그러면, 신도들이 그런 거를 다 알고 저거 한다면 뭐, 별문제지.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가면 고만이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흔들리게 되고 어깨가 외려 무겁게 되는 거야. "시주를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외려 탈피를 하게 되지. 외려 달아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옹골게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어깨의 짐을 탁 내려놓은 거와 같이 그냥 걸음을 사뿐사뿐 걷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모두 해야 할 일이라 이거야. 그런데 외려 짐을 지워 주고, 외려….

그래서 난 그러는 거야. 없든 있든 마음이니까 "당신, 정성을 이렇게 많이 들여." 이러지 않아. 왜냐하면 당장 어깨가 무거울 테니까. 이게 병이 있어도 "병 붙을 자리가 없어.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야. 가벼워야 병도 나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한 짐 지워 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어린애한테 짐을 지워 주는 거나 똑같단 얘기야. 다 큰 어른한테 지워 주는 거야 아, 지고 가려면 지고 가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린애들은 지워 주면 지워 주는 대로 "너, 이거 안 지고 가면 안 된다." 할 때에 그거 치명적이다 이거야. 모습만 보고 저거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님네들도 상당히 조심하고 나가는데, 말을 이렇게 또 조신하게, 남의 말 안 하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 말 갖다가 이 말 하고 이 말 갖다가 이 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된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깡통이 서로 맞대기만 하면, 부딪치기만 하면 소리가 나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먹고살려느냐 이거야. 죽어질 때에, 내가 색경을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됐을 때 '하, 고맙구나, 까맣던 머리가 하얘졌으니. 더 하얘진다면 더 좋겠지.' 이 모두가 하얗게 되는 것은 너 사는 대로, 어떻게 살았든 사는 대로 살면서 몸뚱이도 놓고 가야 한다 하는 신호다 이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업을 짓고, 뺄 수 없는 업을 짓느냐 이거지. 이것이 누구에게, 얼른 쉽게 말해서 누가 된다는 것은 둘째라. 첫째는 자기가 빼고 낄 수가 없는 도리가 된단 얘기지. 누가 되는 건 둘째다 이거지. 셋째는 양면이 다 가난해진다 이거야.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지.

또 자꾸 달아나가니 그건 인연을 지어 줄 수가 없고, 나중에 차 지나간 뒤에 버스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달아나갔으면 또 거기서 지키고 있을 그런 처지가 못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 한마디를 잘못해서 아주 구덩이에다가, 남을 건져 주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다 오히려 빠뜨리는 격이 되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으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제일 첫째는 자기다 이거야. 누구를 떠나서 다 자기야. 둘째에 누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거고, 셋째는 아예 그냥, 자기가 빠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냥 입력이 고대로 되는데.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 안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중략)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만 열중해야지 너는 요거는 잘못했으니까 요거 잘못한 값을 받아야 하고, 요건 네가 잘했으니까 잘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이걸 따지면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과거의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잘못했든지 잘못 안 했든지 무조건 사랑하라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이거야.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려고 자꾸 보이고 들리는 걸 모르고
행동하는 걸 모르고 거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거기에 그냥 나투어서 나에게 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상대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빚을 졌든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든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그 당시에 인연이 돼서 만났으면 만난 대로 좋게 해 줄 뿐이지. 하나라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라도 가볍게 만들고 하나라도 지고 가는 것 털어놓게 만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리고 법사 노릇을 하니까 또 내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야박한 말도 하고 그러지. 야박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게끔 해서 들을 만치 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더 넓어지면, 더 그릇이 커지면 더 큰 말을 해 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도 자기가 빼고 낄 수가 없어.

허허,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찾기에 열중하고 그래야지, 또 끄달리지 말고. 여하간에 내 말에도 끄달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쓸 만한 건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자유인이 되라 이 소리야. 좀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고, 나중에는 우주 전체가 되고 나중에는 삼천대천세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본의가 있느냔 말이야. 오히려 빼고 낄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면 수레공법이든 활궁공법이든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수레공법 하나 할 줄 모르는데 활궁공법을 할 수 있어, 글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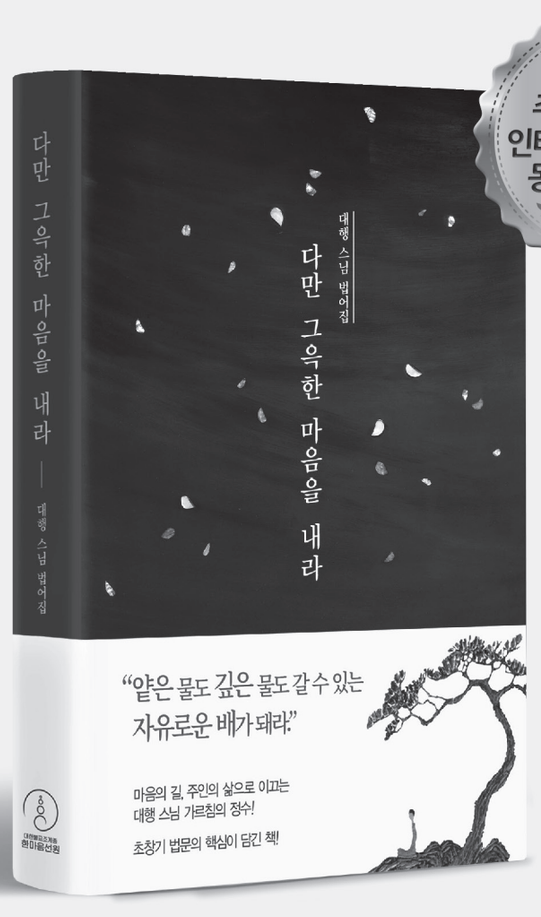
이건 자유스럽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평등공법은 자연스럽게 평등공법이요, 자연스럽게 활궁공법이요, 자연스럽게 수레공법이지. 그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주자주 이렇게, 이걸로도 변하고 저걸로도 변하고 저걸로도 변하는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스럽게 빼고 낄 수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야. 아주 그게, 마음의 그 한 치에 의해서인데 말이야. 그거 한 치를 넓히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빼고 낄 수 있는 자유인이 못 된다면 그건 안 되잖아.

남한테 짐을 지워 주고 남을 세세생생에 건져지게 하질 못하고 낙오가 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죄야?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두…. 흥부가 자기가 가난해도, 자기가 입을 게 없어도, 자기가 그렇게 지내 보니까 너무도 뼈가 저려서 남이 거적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솜이불 갖다가 주고, 또 벌거벗고 있는 거 보면 자기 윗도리라도 하나 벗어서, 해어진 거라도 벗어서 입히고 했듯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익을 줘야지 해를 줘서 되겠느냐 이거야.

내가 "저 불사를 하니까 당신 돈 좀 시주하쇼." 이렇게 하는 거 들어 봤어요? 허허허. 부처님이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고만인 거지 아니, 사람이 이루종차 말로 해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님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서 기름을 짜서 위로 상납을 하고 자기네도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돼지로 살지 않으면 개로 살고, 개로 살지 않으면 송아지로 살고, 송아지로 살지 않으면 독사로 살고 이런다고. 그 껍데기를 못 벗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겁나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자기 하나로 인해서 대대손손 그냥 그 껍질을 못 벗게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지. 나만 그냥 들입다 말을 하고 한마디도 못 하게 만들었으니 어쩌지?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2월 4일 일반 법회에서 법사단에게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